

“목표는 3년 연속 PO...더 큰 꿈을 꾀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오세일 감독과 선수들이 22일 광주시체육관 2층 다목적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2022-2023시즌 SK핸드볼리그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2022-2023 시즌 출사표

강경민·원선필 등 주축 선수 건재 ‘탄탄한 팀워크’ 강점
김수민·김금순 가세 전력 ‘↑’...전훈으로 실전감각 ‘↑’
1월 6일 경남개발공사와 개막전 ‘기분 좋은 출발’ 다짐

“올 시즌 목표는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지만 더 큰 꿈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하 광주도시공사) 감독이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개막에 앞서 22일 광주시체육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각오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내년 1월 6일 경기 광명실내체육관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1월 29일과 2월 4일에는 광주 빙고를 체육관에서 부산시설공단과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두 차례 홈경기를 갖는다.

광주도시공사는 오세일 감독 부임 이후 승승장구하며 팀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20-2021 시즌에는 코트 돌풍을 일으키며 정규리

그 4위, 통합 3위를 달성했고, 2021-2022 시즌에는 정규리그 2위, 챔피언결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오세일 감독은 “팀 성격이 좋아진 만큼 선수들의 자신감도 커졌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선수들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올 시즌은 각 팀들이 활발한 트레이딩과 FA를 통해 전력을 보강한 만큼 ‘절대 강자’나 ‘절대 약자’가 없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오 감독은 “올 시즌 승패를 가르는 변수는 골키퍼의 활약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우리는 박조은이나 손민지 등 기량과 실력이 검증된 수문장들이 포진한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에이스 강경민(센터백)과 김지현(레프트백), 정현희(라이

트백), 송해수(센터백), 서아루(라이트윙) 등 막강한 공격진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선필(포워)과 베테랑 골키퍼 손민지, 박조은의 탄탄한 수비라인도 견제하다. 여기에 신인 김수민(레프트윙)과 나지현(라이트윙)의 영입과 김금순(피봇)의 재입단으로 전력이 강화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시즌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오 감독은 “팀에 새로 합류한 김수민과 나지현, 코트에 복귀한 김금순도 동행해 ‘원팀’다운 팀워크를 다졌다”며 “실전에 버금가는 친선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린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처와 신인 김수민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한승미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정도의 기량을 선보였고, 우려가 됐던 김금순의 체력도 전성기 못지않게 회복한 점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선수들도 어느 해 보다 밝은 표정으로 올 시즌 자신감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장 강경민은 “선배 선수들의 경험과 신예들의 패기가 더해진다면 더 좋

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다. 후배들이 경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만의 기량을 맘껏 펼친다면 목표인 플레이오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감독은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강팀의 전제조건은 두터운 선수층”이라며 “밀집접촉이 많은 핸드볼 특성상 부상이 복병이다. 장기적인 레이스가 이어지는 만큼 백업 자원을 갖춘 팀이 아무래도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우리 팀도 장기적 안목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평형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장(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들의 투지와 승부욕, 오세일 감독의 지도력으로 광주도시공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부상 없이 건강한 리그로 올 시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길 희망한다”며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체육회는 선수들이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22일 오후부터는 광주빙고체육관에서 이번 시즌 개막에 맞춰 전지훈련과 조대여고, 조대부고 팀과의 연습경기 등 마지막 훈련에 들어갔다. /박희중 기자



2023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 다짐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 진흥·발전 워크숍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2-23일 여수 세이지우드 경도에서 전남장애인체육 단체 유대강화 및 자질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남장애인체육 진흥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워크숍에는 전남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시군지회, 전남가맹경기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신규 시군지회 및 정가맹 단체 인증서 전달식, (재)보해장학회 장애인학생 우수선수(목포인성학교 오창주, 덕수학교 장주일, 함평영화학교 이선주, 여수고등학교 정건영)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다.

이해 참석자들은 2023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경기단체, 시군지회, 특수학교 등 전남도 장애인체육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다짐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3년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모두 함께 화합해 준 시군지회 및 경기단체 임원들과 선수단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2023년 전남장애인체육회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메시 들어간 상상의 1천페소 지폐

〈엘 피나시오로 홈페이지 캡처〉

메시, 아르헨 지폐에 새겨지나

“등번호 10번 따 1000페소로”...중앙은행 긍정 검토

아르헨티나에 36년 만의 월드컵 우승을 안긴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지폐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스페인 경제신문 ‘엘 피나시오로’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1천 페소 지폐 모델로 메시를 고려하고 있다. 메시는 “메시의 등 번호가 10번이기 때문에 ‘10’으로 시작하는 1천 페소가 선택됐다.”

지폐 뒷면에는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의 별명인 ‘라 스칼로네타(La Scaloneta)’가 새겨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메시를 지폐 모델로 넣자는 아이

디어는 당초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내부에서 나온 ‘장난스러운 제안’에 불과했다.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엘 피나시오로는 “보카 주니어스의 열렬한 팬인 리산드로 콜레리 제2 부총재와 인디펜디엔테를 응원하는 에두아르도 에케르 이사가 ‘메시 지폐’가 국민들의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자국에서 열린 1978년 대회에서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을 때 기념주화를 발매한 바 있다. /연합뉴스

골프 팬이 뽑은 KPGA 올해 명장면은...

‘캐디한테 우드 뺏긴 챔피언’

골프 팬이 뽑은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최고 명장면은 5월 KB금융 리브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 홀(파5) 페어웨이에서 양지호(33)의 캐디로 나선 아내 김유정 씨가 페어웨이우드를 뺏은 장면이었다.

KPGA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스포츠 N Golf는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해 골프 팬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양지호가 페어웨이우드로 두 번째 샷을 하려고 하다 김유정 씨의 만류에 아이언으로 바꿔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했고 무난하게 우승했다.

김유정 씨는 “풀어가지”고 계속 말했고, 양지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빠른 페어웨이우드를 빼앗듯이 거꾸로 화제가 됐다.

양지호는 대회가 끝난 뒤 “아내가 ‘지호야, 너무 욕심내지 마’라고 자주 말해줬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 아내에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기뻐하는 양지호와 아내 김유정 씨. <KPGA 제공>

게 고맙다”고 말했다.

‘괴물 장타자’ 정찬민(23)이 우승종합전선 오픈 1라운드 18번 홀(파5)에서 2번 아이언으로 두 번째 샷을 때려 278야드를 날린 장면이 2위에 올랐다.

3위는 허인회(35) KB금융 리브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캐디 없이 혼자 백을 메고 경기하는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국내 축구도 월드컵처럼 ‘추가시간 충분히 부여’

내년부터 국내 축구 대회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처럼 충분한 추가시간이 주어진다.

22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협회 심판위원회는 2023년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가벼운 접촉만으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누워 경기의 흐름을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칙의 잣대를 높인다.

이 같은 방침은 21일 열린 ‘2022년 KFA 심판 콘퍼런스’에서 내년도 심판 운영 정책을 발표하며 공표됐는데, 이달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타난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받아들여 팬들에게 더 큰 축구 관전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FIFA 심판위원회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수 교체, 부상, 비디오 판독(VAR), 골세리머니 등으로 손실된 시간을 추가 시간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선수끼리 몸싸움이 일어날 때 접촉의 강도와 속도, 형태에 따라 반칙 기준을 높여 경미한 접촉으로는 경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도 내년부터 ‘하비된 시간의 추가’를 비롯해 ‘교체 선수의 의도된 지연 행위에 대한 경고 처분’ 등의 경기규칙 조항을 확실히 적용하기로 했다.

‘주심을 속이려는 시물레이션에 대한 경고 조치’,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 행위 불허’, ‘심판에 대한 거센 항의 시 경고 또는 퇴장 조치’ 조항 등도 엄격하게 적용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연합뉴스

‘월드 스타’ 김연경, V리그 올스타 팬 투표 남녀 통합 1위



지난 20일 열린 흥국생명 GS칼텍스 경기 1세트 흥국생명 김연경이 동료 득점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V리그 올스타전 ‘김연경 안방’서 1월29일 열려

1년 만에 국내 복귀한 ‘월드 스타’ 김연경(흥국생명)이 프로배구 2022-2023 V리그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남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2일 올스타전에 출전할 40명의 선수를 공개하면서 팬 투표 결과를 전달했다.

김연경은 12-18일 KOVO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온라인 팬 투표에서 8만2천297표를 획득하면서 남자부 신영석(한국전력·6만9천6표)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최다 득표의 영

예를 안았다. 김연경은 여자부 ‘M스타’팀의 일원으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베테랑 미들 블로커 신영석은 3년 연속 남자부 최다 득표 1위와 개인 통산 4번째 남자부 최다 득표 1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최다 득표 2위는 현대건설 미들 블로커 양호진(6만2천890표), 남자부 최다 득표 2위는 대한항공 미들 블로커 김민재(6만8천433표)다.

5만1천387표를 얻어 M스타팀에

합류한 흥국생명 베테랑 리베로 김해란은 개인 통산 15번째 올스타전에 나선다. 이는 남녀부 통합 역대 최다 기록이다.

남자부 M스타팀 세터 한선수(대한항공) 또한 12번째 올스타전에 참가한다. 남자부 역대 최다 올스타 참가 기록은 여우현(현대캐피탈)의 13회다.

이번 올스타전은 내년 1월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며 남녀부는 각각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M스타’팀과 199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Z스타’팀으로 나뉘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